

계룡산도 뚫린다

환경부가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의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확정했다. 천선산 고속철 공사 가 최근 재개된데 이어 계룡산 관통도로 공사마저 강행되면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립공원을 팔아먹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인근 지역 갑사(주지 장곡)와 동화사(주지 요병) 등 사찰의 수행환경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환경부, 관동터널 추진 확정 갑사·동화사 등 환경훼손 적신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는 12월 1일 회의를 열고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도로 확 · 포장 공사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중단된 충남 계룡시 두마면-공주시 반포면간 10km 국도 1호선 확 · 포장 공사가 11개월 만에 재개돼, 총연장 2.45km의 터널 두개를 포함한 4km의 관통도로가 계룡산 국립공원을 뚫고 지나가게 됐다. 지역 불교계에서는 계룡산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확대되면 갑사 등

인근 사람들의 수행환경은 물론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때문이다.

계룡산보존시민운동 공동대표 장곡 스님은 이와 관련 "이미 몇 개 이상의 도로가 개발된 상황에서 효용성이 낮은 계룡산 관통도로를 또 뚫겠다는 발상은 불교계와 주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관치행정의 전형적 사례"라며 "계룡산 지역 사람들과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 관계자 10여 명은 12월 1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사무실에 들어가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집결농성을 벌였다.

이어,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석중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윤주옥 사무국장은 표결 개사와 동시에 회의의 뜻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또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민 재산인 국립공원을 개발정책에 팔아먹은 반생명, 반환경 집단임을 분명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룬운동 등 4차 천일결사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볼 예정이다.

정토회는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일구자는 서원을 세우고 1993년 3월부터 만일결사에 들어갔다. 정토행자들은 5차 천일결사 기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7시 이상 선행을 하자는 약속 등 다양한 과제를 실천하게 된다.

강유신 기자

세번째 단기출가학교 오픈 월정사, 12월 17일까지 접수

1달간의 스님 생활 체험으로 각광 받고 있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세 번째 문을 연다.

제3기 단기출가학교는 겨울방학기간인 2005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열린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행경비는 성인 30만원, 중 · 고 · 대학생 20만원.

단기출가학교에 입학하면 삭발염의(여행자는 원하는 사람만)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초심자(행자) 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불법에 대한 신심고취는 물론, 밖으로만 치닫는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삶을 들여다 점검해 볼 수 있다.

남동우 기자

사회봉사대상 의료부문 최우수상에 감로심장회



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사회봉사대상에서 감로심장회가 사회봉사대상 의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 진주의 감로심장회(이사장 불산)가 11월 28일 문화방송(MBC)이 수여하는 사회봉사대상 의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화방송은 "감로심장회가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및 장기기증주선, 간병봉사 및 헌혈 지원 등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이바지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감로심장회는 지난 1990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 현재 2,000여명의 회원들이 힘을 이뤘 심장병과 기타 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감로심장회의 도움을 받은 이는 수술 환자 165명, 심장병 무료검진 2,097명, 장기기증 4명(13명 수혜), 안면기형 13명, 복지능어른 무료검진 56,564명, 헌혈지원 1,588명, 안과(백내장, 녹내장) 수술 26명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감로심장회 안진지 간사는 "작은 봉사의 손길을 모아 지역사회 및 복지사업의 발전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보다 많은 소외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55)747-0106 김은경 기자

자재암 '태고복지관' 개관



태고종 진전 자재암(주지 혜성)은 진전을 사각리에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인 '태고 복지관'을 건립하고 11월 27일 개관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태고종 원로회의 위원인 보안 스님과 충북교구 종무원장 월담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60평 규모의 태고 복지관은 노인들이 거할 수 있는 4개의 방외에 목욕탕과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 (043)532-9463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청주 용화사

"신행의 신바람 일으킬 것"



충북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불자들. 충북에서는 유일한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인 용화사 충북불교대학은 이문교육 외에 신행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서울에 조계사가 있다면 청주에는 용화사가 있다. 그만큼 용화사가 청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청주에서 용화사만큼 활발히 움직이는 사찰은 없다. 충북에서는 유일한 조계종 포교원이 인가한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대학과 유치원도 있다. 어린이회 · 학생회 · 청년회는 물론이고 신도회가 탄탄하게 꾸려져 있고, 시민선원도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없는 게 없다. 계종과 연령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충분히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

이 개설했다. 또 사보 <용화세계>를 발간해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면서 젊은층의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됐고, 지역복지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노숙자가 절에 와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주 중앙공원에서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김장김치를 나누어주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각 신도회들의 활동은 눈에 띄게 늘었다. 생활 불교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충북불교대학과 용화대학도 이문교육 위주에서 신행중심 체계로 바뀌면서 신도

충북 유일의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신도 포교 진력

추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만 보면 용화사를 도심포교당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용화사 사적기에 의하면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에 창건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계다가 용화사에는 보물 제985호로 지정된 석불상군이 있다.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용화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전통사찰로서, 도심포교당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8월, 각의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충북불교대학의 교과과정에는 주지 스님의 강의가 편성됐고, 용화대학에는 고전무용이나 국악, 발마사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들의 신심이 깊어졌다. 젊은 신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젊은 불교, 신행 불교'를 내세운 각의 스님의 의지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하지만 각의 스님은 내세울 것이 없다고 겸손해한다. 그러면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후원을 더 늘리고 군 포교에도 관심을 높여 용화사를 이웃과 함께 하는 사찰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각의 스님은 지역 스님들의 추대로 지난 10월 청주사암연합회장을 맡았다. 용화사 유직임이 청주불교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각의 스님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지금 청주불교는 용화사를 주목하고 있다. (043)274-2159 청주·한명우 기자

정토회 4차 천일결사 회향

10~12일 문경정토수련원서 5차 결사준비

'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 만일결사 중 4차 천일결사 회향식이 12월 10-12일 문경정토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회향식은 정토회가 지난 3년간 진행한 각종 활동을 결산하고 다음 3년간 실천할 5차 천일결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0여 명 정토행자들은 10일부터 문경정토수련원에 모여 3천배 참회정진을 하고 정토회 지도법사 범문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부산 · 울산 · 광주 정토법당 개설,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 개최, 천선산 살리기 10만인 서명운동, 북한 용원구호 활동, 탈북 주민 통일축전, 음식물 쓰레기 제로 및 빙고

새로운 장례문화 꽃 피울터...

연화회, 10주년 맞아 대중화 모색

장례복합서비스업체 연화회(대표 유재철)가 12월 9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교식 장례문화 대중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연화회는 지난 7월 포교원에서 진행하는 교구본 · 탐사 주지 연수 대상장례를 통한 포교방안 설명회를 갖고, 현재 각 사찰 영불봉사팀의 창립과 교육 등을 돕는 등 장례의식에 대한 인식전환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수업지원 및 관련서적 발간 등을 통해 불교의 장례의식의 역사와

특성 등을 학술적으로 연구, 보급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연화회 유재철 대표는 "10주년을 맞아 불교장례문화를 정례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불교장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불교장례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화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례서비스 및 수익구입, 납골당 이용료 등의 각종 장례서비스를 10%할인 서비스할 계획이다. 단, 1 · 2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례비는 50%할인. (02)734-4444 김은경 기자

삼매체험 선 수련회 안내

- 존재의 실상을 바로 삼시다 -

화두 참가가 바르게 될 수 있는 문답식 법문이 수련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정진과 점검을 반복하여 화두 참가가 자리잡아갈도록 지도한다. 의정이 문발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한다.

- 1)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심오한 관화선 수행이 행해짐.
- 2) 모든 업장과 습기를 뛰어넘어 곧 바로 당처를 관조하여 단박에 수행에서 뛰어넘는 직관수행의 길에 바로 나아가는 체험
- 3) 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지와 미혹의 맹목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
- 4) 불교를 바르게 알고 깨달음과 해탈의 삶에 다가간다.
- 5) 기복과 타력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 6) 그릇된 종교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불교관을 찾을 수 있다
- 7) 생활에서 수행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종선을 체득한다.
- 8)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도록 한다.

홈페이지 www.wnseon.com

대상 및 인원 · 성인 남녀 00명

수련일정(4박 5일) · 1차: 04. 12월 24일 ~ 12월 28일 · 2차: 12월 31일 ~ 05. 1월 4일(일부인)

접 수 · 12월 20일 까지 선착순 마감.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여야 함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 통지함)
*항공사 예약전화: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신청 및 서류 · 후원금 입금후 서류제출 아래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세요

1. 성명(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주택, 직장) 4. 전화(주택, 직장, 휴대전화) 5. 종교
6. 직업-학교(과)만 7. 참가동기 8. 수련회 참가경험 유 · 무(유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 원하는 차수 10. 본 선원 참석 유무 및 년도

문의 시간 · 평일(월 ~ 금)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해주세요.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접 수 처 · 제주시 화북 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 064-755-3322 / 팩스 064-755-0880 (팩스 신청 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회 비 · 후원금으로 받음(생계가 어려운 자는 혜택이 있음) 후원금 입금 (농협 953-17-000706 예금주: 원명선원)

① 자성을 열린도량 원명선원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조종과정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 및 특강반을 개설하여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 출가자(행자)과정 - 출가득도를 희망하는 남 · 여(1년)
- ▶ 경전연구자 과정 - 스님 및 교인, 관심있는 불자(1년)
- ▶ 의 식 과 정 - 초심자, 불자, 법사, 교인, 스님(1년)
 - 기본반 : 4개월(월, 화) ○ 전문반 : 4개월(수, 목) ○ 연구반 : 4개월
- ▶ 의 식 과 정 -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지도함
 - 바라반 - 바라춤에 관한 일체를 집중 지도함
 - 착복반 - 다계 도량계 사방요신등 일명 나비춤을 집중 지도함
 - 사물반 - 목탁 요령 태징 법고등 사물다루는법 지도

* 그 외 호적, 서예, 생활역학 등을 희망하시는분 직접 지도해 드림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63-5213
(기숙사 및 숙식 가능함. 주차장 완비)

3 개강일자

2005년 1월 3일 오후 4시(예정)

4 모집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